

## 후원안내



### 후원미사 안내\*

매월 세 번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12월 후원미사는 19일, 2017년 1월 후원미사는 16일, 2월 후원미사는 20일에 봉헌합니다.  
 참석하실 수 있는 후원회원은 **노동사목회관**으로 오세요.  
 감사합니다

문의 / 02.924.9970~1

### 2016년 10월 후원회원 후원금 사용 내역서\*

#### 수입내역

| 수입 총액 | 23,409,432 | 전월이월금 | 901,432   |
|-------|------------|-------|-----------|
| 지 로   | 3,134,790  | 우리은행  | 7,610,390 |
| 국민은행  | 4,979,000  | 하나은행  | 1,421,130 |
| 조흥은행  | 110,020    | 신한은행  | 1,190,150 |
| 외환은행  | 1,437,500  | 제일은행  | 220,020   |
| 농 협   | 1,455,000  | 기업은행  | 390,000   |
| 우 체 국 | 70,000     | 저정기탁  | 490,000   |
|       |            | 교구보조  | -         |

#### 지출내역

| 항목                    | 지출         | 세부내역      |                                    |
|-----------------------|------------|-----------|------------------------------------|
| 단<br>체<br>찬<br>조<br>비 | 베들레헴어린이집   | 7,000,000 | 인건비, 주부식비, 교육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
|                       | 베다니아의 집    | 1,000,000 |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
|                       | 벳들의 집      | 925,000   |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행사비 등                 |
|                       | 마고네공부방     | 600,000   | 간식비, 교육비 등                         |
|                       | 몽골공동체      | 200,000   | 제전비                                |
|                       | 남미공동체      | 300,000   | 제전비                                |
| 소 계                   | 10,025,000 |           |                                    |
| 지원금                   | 노동사목위원회    | 5,070,000 | 장기수선충당금 등                          |
| 운영비                   | 이주사목위원회    | 6,785,000 | 운영비 등                              |
| 지정기탁금                 | 지정기탁       | 490,000   | 산재, 진폐환자 가정 생활비                    |
| 지출 총액                 | 22,370,000 | 잔액(이월금)   | 1,039,432                          |

### 후원계좌 안내\*

**우리은행** 454-006742-13-007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국민은행** 093-01-0297-691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 좋은이웃

www.seoulmigrant.net

2016. 11 / 제5호

펴낸날 2016. 11. 21 | 펴낸곳 이주사목위원회 | 펴낸이 남창현 | 편집 김평안 | 주소 (우)02872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95 노동사목회관 4층 이주사목위원회  
 전화 (02)924-9970~1 | 팩스 (02)924-9972 | 이메일 migrant@catholic.or.kr | 홈페이지 www.seoulmigrant.net

## 신부님글

“우리 시는 세상과 ‘하느님 나라’”

"하느님 나라가 언제 오는가?"하는 것은 예수님 시대 당시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메시아라는 칭호 아래, 다윗의 왕권이 꼭 재건되리라는 예언이 성서에 기록되었고, 또 많은 유대인들은 그 약속을 그들은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오면 외세의 침략도 물리치고 유대인들의 강성한 나라를 회복하여 정치적 독립, 경제적 번영, 그리고 종교적 거룩함을 모두 이루는 것을 하느님 나라의 도래로 여겼습니다. 다만 그때가 언제인지, 과연 누가 메시아인지가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간절했던 것입니다. 즉, 그들은 마치 혜성처럼 영웅이 나타나 모든 정치적 갈등을 해결하고 민족의 번영을 이루어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이러한 신념에 차 있던 유대인들은 복음에서 예수님께 '하느님 나라가 언제 오느냐?'(루카 17, 20)하고 따져 묻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하느님 나라는 그런 세속적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에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의 예상과는 다른 답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라, 여기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하고 사람들이 말하지도 않을 것이다."하시며 "보라,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루카 17, 21)하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11월 미국 대선에서 미국 국민들은 트럼프의 나라를 선택했습니다. 인종차별주의자, 여성혐오주의자로서 막말로 사람들의 적개심과 분노를 일으키며 자신의 정치적 생명력을 유지하던 아웃사이더가 한 해 국방비로만 천조를 쓰는 나라에 최고 통수권자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강한 미국을 원한다며 트럼프를 뽑았고 트럼프의 나라의 국민이 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거대한 강대국 미국이 타인에 대한 적대감으로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출했을 때, 앞으로 세계의 평화가 참으로 우려스럽기만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시선을 돌려 우리를 보더라도 걱정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최순실의 나라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출되지 않았고, 통제받지 않았으며,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한 60대 여성이 대통령과 40년 동안 친하게 지냈다는 이유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렇게 정책을 결정했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의 나라에 사는 것만으로도 답답하고 아쉬운 점이 많았는데, 그도 아닌 최순실의 나라였다는 것이 요즘 유행하는 표현을 빌려 '내가 이러려고 국민이 되었나..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하기에 이러한 시국에 그 어느 때보다도 마치 유대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하느님 나라가 그리고 간절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 순간 다시 기억할 것은 하느님 나라는 강력한 정치인 한 명, 책임 있는 국무총리 한 명, 혹은 양심적인 언론인 한 명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느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느님 나라... 그것은 바꾸어 말하면 하느님의 다스리심과 하느님의 충만함이 가득한 나라는 그 나라를 알아보는 사람들, 그래서 그 나라를 찾아내고 일구어 가꿔내는 사람들에 의해 한결음씩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 모든 나라와 인류 공동체, 그리고 가장 직접적으로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하느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희망을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과 다스림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을 새롭게 하는 노력을 멈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서 부정과 미움을 멀리하고 공정과 자비를 선택할 때, 하느님 나라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음을 믿고 세상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간직할 수 있는 희망이고 그것이 가장 강력하게 그리스도인이 만들 수 있는 희망이 될 것입니다.

- 지난 연중 제 32주간 목요일, 노동사목회관 직원미사 강론 중에서,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위원장 정수용 이사시오 신부

### 공동체 소식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업\*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조기 정착에 도움을 주고자 한글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준별 7개 반(초급, 중급, 한국어능력시험반 등)을 운영하고 결혼이민자 100여명이 현재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의 해체사유 중 부부·가족갈등이 가장 큰 사유(출처:여성가족부)라고 합니다. 의사소통이 원활해지면 부부·가족, 더 나아가 이웃과의 관계도 원만해질 수 있다는 중요성을 알기에 한국어교육에 특히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떠나 타국으로 온 결혼이민자가 문화적인 차이로 겪는 심리적인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센터는 상담과 다양한 경험(가정상담, 육아상담, 국가별 자조모임, 한국음식만들기 등)을 제공해주며 친정이 되어주고자 합니다.



#### 베트남공동체 소식\*

베트남공동체는 10월 로사리오성월을 맞이하여 절두산으로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이날 이주노동자 220여명이 참석하여 미사와 십자가의 길 기도를 드렸습니다. 타국에서 일하며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한국의 순교성인들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 베들레헴어린이집 소식\*



▲ U-성북도시통합관제센터견학



▲ 북한산 자연 숲 체험

#### 사단법인설립 소식\*

이주사목위원회는 사회적약자인 이주민들에게 더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을 위해 '사단법인 서울가톨릭 이주·난민센터'로 법인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5일에 유경춘(사회사목국 교구장대리) 주교님을 이사장으로 하여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주민들이 한국의 사회구성원으로 서 생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016년 기부금영수증 발송 안내\*

2016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입금하신 기부금을 확인하여 2017년 1월초에 기부금영수증을 일괄 발송할 예정입니다. 2016년 안에 기부금영수증을 받으시려는 분이나 가족명의로 변경하여 발급받기를 원하시는 후원회원께서는 저희 사무실로 연락하시면 우선 발송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문의: 02-924-9970/1)

### 문화알림

#### ABOUT Thailand 태국\*



- 수도 / 방콕
- 종교 / 불교(95%), 기타(이슬람교, 기독교 등)
- 기후 / 열대몬순성기후
- 인구 / 약 6,797만명(세계 20위)
- 기념일
  - 1월 신정(1일)
  - 2월 만불절(9일)<sup>1)</sup>
  - 4월 왕조창건일(6일), 송크란(13일)<sup>2)</sup>
  - 5월 노동절(1일), 석가탄신일(8일), 권농일(11일)
  - 7월 삼보절(7일),<sup>3)</sup> 입안거일(8일)<sup>4)</sup>
  - 8월 왕비탄신일(12일)
  - 10월 라마5세 서거일(23일)<sup>5)</sup>
  - 12월 국왕탄신일(5일), 제헌일(10일), 연말(31일)

##### 1) 만불절(2월 9일)

석가가 가르침을 시작한지 7개월 후 그의 설법을 듣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1250명의 제자들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다. 태국인들은 만불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 스님들에게 시주를 하고 저녁에는 말씀을 듣기 위해 절을 방문한다.

##### 2) 송크란(4월 13일~15일)

축복을 기원하는 뜻을 가진 송크란은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물의 축제다. 한 낮의 기온이 최고조에 달할 때 남녀노소 서로 물을 끼얹으며 축제를 즐긴다. 송크란 축제 기간은 태국 최대의 연휴기간이며 동시에 태국 신년축제 기간으로 어느 누구에게나 물을 뿌릴 수 있고 물세례를 받는 사람도 즐거워한다. 물을 뿌리는 의미는 더위를 해소하고 좋지 않은 기억과 때를 벗기는데 있다.

##### 3) 삼보절(7월 7일)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은 2주 후 사슴동산에서 다섯 제자들에게 첫 설법을 전했다. '삼보절은 첫 설법을 전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자 불교 사순절의 시작을 알린다. 불교문화가 나라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만큼 국가공휴일로 지정된 불교기념일이 많다.

##### 4) 입안거일(완카오판싸, 7월 8일)

6월부터 시작되는 우기에는 많은 생물들이 활발히 움직인다. 이때 돌아다니게 되면 살아있는 생명을 자신도 모르게 밟아 죽이게 되기 때문에 돌아다니지 않고 한곳에 머물면서 수행을 하는 것으로 3개월 동안 스님들이 안거에 들어가 수행을 하는 것을 기념하는 태국 최대의 불교기념일이다.

##### 5) 라마5세 서거일(10월 23일)

라마5세는 1868년 왕위에 올랐으며 영국과 프랑스의 지속적인 위협에도 태국의 근대화를 이루었다. 항후 대왕이라는 칭호를 받았고 태국의 공경 받는 왕 중의 왕으로 평가받는다.

#### 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 태국공동체\*

태국공동체는 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의 소속된 국가별 공동체로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겪는 불공평한 임금이나 복지, 열악한 근무 환경 등과 같은 어려움들에 대해 인지하고 한국에 체류 중인 태국 출신 이주민들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태국 평신도 선교사가 근무하며 국가별공동체를 통해 이주 노동자들이 스스로 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해나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취업자격으로 한국에 머물고 있는 609,211명의 체류외국인 중 태국인은 24,923명(2016.8.31. 출입국인민정보과 통계)이며 불교국가이기에 가톨릭신자는 매우 적은 편이다. 하지만 가톨릭신앙을 가진 태국출신 이주노동자들을 위해 **매월 둘째 주 일요일 오후 4시 30분 노동사목회관에서 미사를 봉헌**하고 있다.